

# 고은 불교대학 소설



78

우녀의 말이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방바닥에 퍼진채 마구 떨어내고 있었다.

인담이 게으른 뱀이 퍼리를 천천히 풀듯이 그의 결가부좌를 풀어서 두다리가 각각 떨어졌다.

“지진이 아니라 인진(人震)이로다”

라는 어수룩한 농담에도 불구하고 인담의 표정은 정직한 불안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우녀의 떠는 몸을 보고 한마디 위안의 말을 잊지 않았다.

“골 가라앉겠지요. 허기가 우리 몸이 온 온(五臟)의 거짓 화합(和合)으로 된 것이니 우리 몸이 지탱하고 있는 땅덩어리인들 어찌 거짓 화합이 아니겠소. 이월의 나날은 다만 지진이 잠들었을 뿐이고 지금이야 오랜 잠에서 깨어나 한번쯤 편히 하품이라도 해보는 것이 아니겠소.”

그들의 몸을 흔들 어대고 바닷가의 바위와 바위 위의 본채 건물까지 흔들려대는 일은 무려 금강경을 절반쯤 읽을만한 시간내내 이어졌다. 꽤나 긴 지진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욕도의 두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 밖에 남아있지 않은 본채조차 아무런 손과 발이 없는 무사고의 지진이기도 하였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속에 있는 지진의 기록으로 보자면 한반도의 각처가 다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임에 틀림없으나 그것으로 큰 재앙이 생긴 적이 없는 세월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지진이란 한갓 오래된 풍문이기 십상이었다.

그런 나머지 옛 민담 속에 이따금 나타나는 지진도 귀신의 장난쯤으로 그려지게 되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진은 이번의 무욕도에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온갖 암벽이나 산등성이와 평면이 크게 갈라지거나 집 몇채들이 갈라진 틈으로 파편하

변을 보장하는 일은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잊어버림으로써 영속적인 집착으로서의 탐욕과 어리석음 따위에 의존하고 있는 세상에의 경종(警鐘)으로 삼아 환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 지진이요.

지진은 드넓은 들녘을 돌이나 쇠로 갈라 놓는 단층운동으로 그치는가하면 지진의 영역이 바다 밑까지 밀려나고 있을 때는 해면파(海面波)에 의해서 먼 바닷가를 밀어 붙이는 해일을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무욕도를 한동안 떨게 만든 지진도 장차 그런 해일을 위한 전진(前震)이 아닌가. 지진에도 전진과 주진(主震) 그리고 여진(余震)이 있기 마련이라면.

이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라고 인담이 웃음을 세우며 말을 이었다. “문자를 내세우지 말라는 뜻이 문자 아니고도 이 세상의 공극을 깨달을 수 있음을 실증했지요... 그래서 소경(무식장)이 눈은 사람(식자)을 앞장서서 이끈다는 말이 있었지요...”

그들은 특별히 선(禪)의 불입문자나 교외별전 따위의 직관 직입을 주장하지 않고도 글자 한자 모르는 사람들의 정신현상 자체로서도 진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 놀이에서 저 놀이로 옮겨가며 심심풀이를 하는 것처럼 서로 확인한 것이었다.



## 다시 지진

그들의 몸을 흔들 어대고 바닷가의 바위와 바위 위의 본채 건물까지 흔들려대는 일은 무려 금강경을 절반쯤 읽을만한 시간내내 이어졌다. 꽤나 긴 지진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욕도의 두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 밖에 남아있지 않은 본채조차 아무런 손과 발이 없는 무사고의 지진이기도 하였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속에 있는 지진의 기록으로 보자면 한반도의 각처가 다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임에 틀림없으나 그것으로 큰 재앙이 생긴 적이 없는 세월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지진이란 한갓 오래된 풍문이기 십상이었다.

그런 나머지 옛 민담 속에 이따금 나타나는 지진도 귀신의 장난쯤으로 그려지게 되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진은 이번의 무욕도에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온갖 암벽이나 산등성이와 평면이 크게 갈라지거나 집 몇채들이 갈라진 틈으로 파편하

방바닥이 부들부들 떠는 정도의 지진도 그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안심하기보다 떠는 정도가 상당한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될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방바닥이나 바깥의 바위까지도 떨 정도의 지진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라진 뒤의 평상(平常)이야말로 그동안의 평상과는 또다른 긴장을 유발하고 있었다. 인담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살아온 나날이 다 이런 덧없는 데에 바탕을 둔 것이었소. ...하기는 너다 나다 하는 이 자이라는 것도 얼마나 헛되고 덧없는 것으로서의 무아(無我)인가를 새삼 깨달을 일이오. 어디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밤을 세우어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이겠어? 이렇게 조기새끼나 뱀뱀새끼 한 마리나 우리 두 사람이 어느날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아침에 뜨는 해는 철이 없어서 빛나지만 저녁에 지는 해는 다 지난 일이라서 아무런 눈부심도 없이 쫄뻛 빠지는가요?”

라고 우녀가 정병 장난하는 어린아이처럼 말하였다.

“아침 해 저녁 해 따져볼 것은 또 뭐요? 우녀님의 눈빛이 꼭 꺼져서 잠이 덜 깬 듯 같습니까. 그전에는 눈에서 시퍼런 귀기(鬼氣)가 서리거나 살기까지 돌아 그 빛나는 것이 가히 두려운 바 있었는데... 그때는 만화나 꿈도 남같이 우녀님을 쳐다보지도 못했지요. 무전도 파전도 그 고기잡이 우렁부락한 사나이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빛이란 빨리 내버리는 것이 좋아요. 참다운 빛이 그 뒤에 나타나는 법이니까.”

“참다운 빛은 빛나지 않는다(眞光不耀)라 그건이가요?”

“아무렴... 진짜배기 빛이건대... 병어리 돌맹이와 다를 바 없게 눈부신 빛살 따위

## 두번째 갑작스럽게 나타난 지진이야말로 불안을 촉발시키는 무욕도의 장래이었다 “지진도 경전입니다 비법도 불법일 때는”

버리거나 하는 엄청난 규모는 오래 큰 화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런 화재가 최악의 업보와 지옥의 고통을 면제받기 위한 불의 정화(淨化)라는 아주 고풍스러운 화상(火傷)에 관한 것이 민담 속에 끼여있게 되었는지 모른다.

과연 지진의 큰 규모는 지옥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지진이야말로 이 세상이 결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 이 세상의 운동은 쉬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까지 있었던 냇물이나 강물의 줄기가 지진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새로운 줄기를 낚는 일 역시 이 세상의 고정이나

만고의 진리라고 말하지 못할 바 아니겠지.”

“그렇진대... 임춘의 시문이나 찾아온 식자(識者)인 인담님 보다 시 한줄, 글 한 구절 읽을 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그 비문자(非文字)의 진리야말로 능히 가르침 밖에 전해지는 진리가 아니겠어?”

이 말은 인담이 지난 날 뒤늦게 무욕도 식구가 되었던 불이 못지 않게 시를 좋아했던 것을 은근히 건넬려는 우녀의 가시 돌린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가시는 어린 선인장의 그것이어서 실로 보드라운 터럭과 다를 바 없었다.

그만큼 우녀는 인담과의 격의 없는 사

다 죽어버린 나머지여야 하겠지요...”

“그말 바에는 구름 속의 달입니다.”

“그 경지도 모하겠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런 말보따리 주고 받는 가운데 우녀가 문득 그들의 수행처 겸 침소인 본채 뒷쪽 불단 위에 모신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옛 불상이 문득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아니?”

라고 우녀는 그 자신이 착각인가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한번 불상을 쳐다 보았다. “무슨 일이요?”라고 인담도 우녀의 시선을 따라 불상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다시 불상이 흔들려갔다.

사람은 불상을 쳐다보는 눈이 방구석의 벽에 걸려있는 횃대의 가시(髮髻) 두발도 횃대와 함께 흔들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흐음!”

그것 뿐이 아니었다. 다시 방바닥이 움직였다. 두 사람의 앉은 엉덩이에도 그런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지진입니다. 또...”

라고 인담이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마치 지진 자체가 들기라도 하면 노발대발할 것이 두려운 것처럼.

하지만 그 지진은 한동안 있다가 자취 없이 사라졌다.

그들의 주위, 특히 그들이 새벽과 저녁으로 죽비 세번을 쳐서 세번 큰절을 올리는 대상인 불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지진은 첫번째의 지진과는 달리 주위로부터 그들 자신에게 옮겨오는 것이었다.

일정한 공간인데도 한꺼번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먼저 흔들리는 것과 주위의 것이 먼저 흔들리는 것이 있는 것도 기이하였다.

“자습니다.”

라는 인담의 말에는 어떤 공포를 읽을 수 있었다. 지진보다 지진 이후에 되찾은 평온이 제2의 공포가 되고 있었다.

다음번에는 언제 어떤 규모로 닥칠지 모르는 그 지진의 다스릴 수 없는 힘이야말로 인간의 역량 밖의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빨리 손님과 친해지는 도리 밖에 없겠지요.”

이 말은 우녀가 내뱉은 것이었다. 손님이란 지진을 뜻한다. 그들이 결코 초창하거나 환영하는 손님이 아닌데도 벌써 두 번째나 갑작스럽게 나타난 지진이야말로 이틀이면 막 떨어지기 직전의 병든 원숭이가 죽은 나무가지에 매달려있는 불안을 촉발시키는 무욕도의 장래이기도 하였다.

“지진도 경전입니다. 비법(非法)도 불법(佛法)일 때는.”

그림 · 조향숙

상의 허공에도 지하의 압축에도 힘이 있다. 지하의 탄성(彈性)을 가진 힘이 전혀 다른 파동(波動)의 힘으로 바뀌어지면 그 힘은 결코 조용한 부동자세의 긴장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엄청난 지하세계의 동력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발전한다.

그 힘은 지상이나 바다 밑의 지면에 예상할 수 없는 변화를 가한다. 그 규모의 폭 또한 살아있는 물체의 촉각으로 느낄 수 없는 미미한 상태로부터 엄청난 지각변동의 폭력을 과시하고도 남는 상태에까지 걸쳐 있다.

무욕도에 지진이 일어난 일은 이제까지 없었다. 이 사바세계의 하루하루가 수천년의 지진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진의 하나가 실로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미진(微震)의 규모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지진이 나서 별채의 기둥이 쓰러졌다던가 바위너셀에 금이 갔다던가 하는 일은 한번도 있어본 적이 없다.

몇천년 전의 규모가 큰 지진은 이제 하나의 민담(民譚)으로 변하여 지진의 실감이 없다. 그런 민담이 아니면 10여년전 무욕도 수행자를 섬기는 육지 신도의 어린 딸이 신들린 나머지 ‘섬이 가라앉는다’ ‘섬이 불타다!’ 따위의 아련한 예언을 외친 일과 함께 그 뒤로는 심심풀이도 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무욕도의 두 사람이 앉아 있는 방 전체가 마치 바쁜 조랑말등에 안장 없이 타고 있는 것 같은 동요로 채워졌다.

“더허... 완석(頑石)이 움직인다(動也)더니 이 방바닥이 제법이네.”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長腦(장뇌) 山蔘**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 수행생, 운동선수, 병후 몸조리를 하시는 불자들에게 최상품 산삼을 최저가격으로 인연을 맺어드렸습니다.

■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산지확인가능)

**장뇌산삼의 효능**

- 기사회생의 영약(靈藥)으로 간(肝), 당뇨(糖尿), 고혈압(高血壓), 저혈압(低血壓), 암(癌), 심장병(心臟病) 등 성인병에 좋으며 정기(精氣)를 강화해 줍니다.
- Stress에 의한 신경과민, 빈혈, 냉증에 좋습니다.
- 눈이 맑아지며 추위를 따지않고 머리가 좋아집니다.
- 건위(健胃), 조혈(造血), 신진대사(新陳代謝) 촉진작용을 해줍니다.
-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주며 면역기능과 자연치유력을 높여 줍니다.

※ 특전: 각종 자연건강 보조식품 및 약을 염가로 알선해 드립니다.

전화 주문처: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大物民藥院 서울(02)207-8387

**직원채용**

자비동산 소향원은 노인복지 시설로서 무료 양로원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한 것이고 그것이 진리요 아름다움의 극치라는 생각을 하시는 정월곡(관음불교회 관장)님의 발원으로 설립된 소향원은 지난 5년간의 행인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1990년 9월 7일 첫 삼을 뜬지 9개월만에 걸친 공사 끝에 건물을 완공하고 주변 환경 조성 및 개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정신으로 노인분들을 지극정성껏 봉양함으로써 참다운 자비를 깨우치고 실천해나갈 직원을 모집합니다.

① 모집부서 및 자격

- 생활지도원 0명 사회복지사자격 2급이상 취직자도 만30세 미만인 자
- 간호사 0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소지자
- 세탁부 0명 50세 미만으로 신체 건강한 여성
- 취사부 0명 50세 미만으로 신체 건강한 여성
- 생활보조원 0명 50세 미만으로 신체 건강한 남, 여

② 제출서류

- 1) 이력서 1부 (사진부착)
- 2) 최종학력증명서 (생활지도원, 간호사)
- 3)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제출기간: 1996년 5월 30일

④ 신청방법: 서류심사후 면접 (개별등보)

⑤ 접수처: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동 438

■ 문의: (062) 222-6030, 227-7842

사회복지법인 소향원

부처님 이땅에 오심을 기뻐합니다.

**대한불교 산악회** (가칭)

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오신날 산행의 길과 오롯이 가는 수행의 길이 다르지 않음을 알아 부처님과 산을 사랑하시고 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시는 전국의 모든 불교산악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먼저 연락이 닿은 서울, 성남, 대구, 부산불교산악회에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불교산악인과 함께 보다 여법한 단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인연을 기다리겠습니다.

● 문의처: 준비위 사무국

전화 (051) 464 - 2020

서울금강메아리산악회장 김대원  
성남 불교산악 회장 임선교 합장  
대구 불교산악 회장 김장근  
부산 불교산악 회장 한계수